

4 시시콜콜한 일상사를 전해 줄 수 있는 소식통이기도 했다.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 주먹 크기에 따라 반찬거리 값이 정해지는 곳이었으며 낮선 사람들이 동네길을 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공해주는 곳이었다.

편의점의 등장은 그런 마을 정서를 앗아갔다. 24시간 대 낮처럼 환한 조명을 밝히고 낮익은 주인 대신 제복을 차려입은 앳된 얼굴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바코드기계로 계산기를 눌러대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에게나 어울릴 매장진열, 이름도 알 수 없는 오간 종류의 수인 과자와 설탕

상 심천역의 남중의 홍보관장에 의하면 편의점의 증가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40평 이하의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들이다. 대형백화점이나 대규모 슈퍼마켓에서는 주부들 중심의 소비자 층이 확실하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주고객이 젊은층인 편의점과는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구잡이로 상품을 진열해 놓는 구멍가게들에 비해 정교한 레이아웃에 의해 순리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점포기여도에 따른 발빠른 상품체크, 기업수준의 효율적인 관리제도 등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7 표색기

또다른 젊은이 문화 양산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강남역 주변에는 두개의 <세븐일레븐>매장이 연달아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보면 편의점과 젊은이 문화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컵라면, 빵류에서부터 즉석에서 피자나 죽 등을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전자 레인지도 준비돼 있다. 그러한 편의점의 등장은 젊은이들의 먹는 문화의 양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른바 '서서

7 표색기

적으면 과자도 먹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한 양은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먹을 것이 가득찬 냉장고를 옆에 두고 먹는 것처럼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편의점은 외제품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구미에도 꼭 맞는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마진율이 적은 국산품(10~15%)보다 수입상품(25~30%)을 선호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압구정동, 혜화동, 신촌 등지의 편의점의 외제상품 취급율은 80%를 육박하고 있다. 편의점의 증가가 일

7 표색기

<AM PM>이 18개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그밖에 매일유업의 <러브 엠>, 원스탑체인의 <원스탑> 등이 더 있고 기업차원이 아니고 개인이 독자적인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들도 적지 않게 설치되고 있다. 편의점의 규모확장 요소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 액면 그 대로의 성장 원인은 물론 매출량의 증가와 높은 수익성보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있게 속을 들여다 보면 매출량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점포수 늘이기에 급급한 편의

7 표색기

는 편의점들에 대항하기 위해 싱싱한 채소들을 많이 준비해 주부들의 발길을 이끌거나 매장의 개성을 살려주는 상품을 많이 진열하면서 편의점과 차별화하는 쪽으로 운영방식을 바꾸어 보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그러나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거나 편의점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체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한국식 구멍가게는 농촌드라마에나 등장하는 소도구로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황금희 기자>